

순천, 경제행보 투자유치 순항

5개 기업 8천억원 규모 협약 추진 (주)포스코와이드와 레저타운 조성 500여명 고용 창출...경제 활성화

순천시가 투자시장 확산기 속에서도 다가올 따뜻한 봄맞이에 한창이다. 정월박람회 성공에 감과 함께 순천을 찾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첫 번째 투자 의뢰를 받은 기업은 (주)포스코와이드이다.

시는 지난 23일 (주)포스코와이드와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4일 지식정보문화기업인 (주)컬컴퍼니, 4월 ESG에너지 저장시설 제조업체 A기업까지 줄줄이 업무협약이 예정돼 있다.

(주)포스코와이드와의 업무협약은 포라이즌(옛 승주CC)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으로 9만 평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으로 순천시의 숙원사업인 체류형 힐링관광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프리미엄 레저타운은 비즈니스, 힐링, 레저가 결합된 체류형 숙박시설로 웰니스를 중시하는 MZ세대 성장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기업들의 위계선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200여 명의 고용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국가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소재를



순천시와 (주)포스코와이드가 최근 포라이즌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생산하는 대기업 B기업과는 고용인원 130여 명, 투자비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는 3년 넘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반동시킬 절호의 기회로 2023정월박람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 민생과 경제회복의 강한 의지가 담긴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사람과 기술, 자연을 잇는 생태경제 글로벌 표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민선8기 5대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5대 핵심전략으로 우주, 바이오·푸드테크, 디지털, ESG경영, 웰니스산업을 선정, 미래 순천 100년의 먹거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월박람회 이후 'NEXT 순천' 미래 먹거리를 투자유치한다는 큰 그림은 정부 신성장4.0에 발

맞춰 준비해왔다.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름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선월농공단지(4만평), 해룡2-2일반산단(18만평), 도시점단산업단지(5만8,000평)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선8기 동안 특화산단 6개소 조성, 신규 일자리 1만8,000명 창출, 투자기업 35개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순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 대표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이 잘 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일사천리 기업 섬김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확정

3개 분야 9개 사업 추진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열고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 전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참석해 김보라 광양시의회의 의원을 포함한 유관기관, 교수 및 기업 대표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와 상생, 나눔의 따뜻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로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협력과 포용의 성장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최광신 남부대 교수를 선임했으며, 뒤이어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목표로, 주요 추진과제는 3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3개 분야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홍보다.

9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

데미 운영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간담회 및 워크숍 ▲순천지 벤치마킹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예비 창업가, 예비 사회적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광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과 인력 부족 대책구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소평물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관내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 구매 참여 노력 등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우성진 기자

광양-포스코 광양제철소, 하포마을 연합봉사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최근 골약동 하포마을을 대상으로 연합봉사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하포마을은 130여 세대 29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과거 '하포항'으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하포항이 폐항돼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의 전통과 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하포마을의 활기를 더해주고자 광양시와 광양제철소는 통장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을에 필요한 마을 입간판 설치, 도배·장판 교체, 전기·농기계 수리, 화재감지기

설치, 이미용, 발마사지 등 26개 분야의 봉사를 추진했다. 특히 하포마을의 104세 고령 어르신 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마음이음꽃잎이 재능봉사단에서 어르신의 생신상과 소품을, 광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만든 이불과 수면바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 밖에도 광양시청 작은봉사회,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중마노인복지관, 광양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 광양YWCA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도 참여해 하포마을의 활력을 더했다. /우성진 기자



보성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현대백화점 그룹, 저소득층 아동 후원 맞손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저소득층 결연 아동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저소득 아동 6명이 18세 까지 매월 1인 10만 원씩 계좌이체로 후원받게 됐다. 후원금은 6,300여만 원이다.

또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도 현대그린푸드에서 15만 원 상당의 식품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현대백화점 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추진했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보성군 대표 쌀인 녹차미인 보성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성군의 농특산물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성=백종두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업무협약

학술출판 상호 협력관계 구축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최근 '학술출판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술출판 협력사업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비롯해 5개 기관을 선정해 1개 기관에 최대 2,000만원의 학술출판 대금을 지원해준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간 자문 및 대금지

급 ▲기획 및 원고작성, 편집 등 수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학술출판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청문화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흥도 자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를 주제로 교양서적을 발간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더 나은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박물관·기관 등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에 콘텐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진종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주)엑스텐비, 이웃사랑 성금 전달

광양시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주)엑스텐비(대표 채주연)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엑스텐비는 모바일앱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영상 제작,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조손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채주연 (주)엑스텐비 대표는 "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밑알복지재단에 꾸준히 정기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중마동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 기회를 통해 중마동에 소중한 나눔을 하게 됐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우성진 기자



순천마린클럽, 다문화가정에 생필품

순천시는 최근 순천마린클럽(회장 김영락)이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있는 꾸러미 40상자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한 생필품 꾸러미 상자는 화장지, 학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순천마린클럽 81명 회원들이 대한민국에 이주해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힘들었을

다문화가족들을 응원하고자 심심일만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김영락 순천마린클럽 회장은 "생필품 상자를 받고 행복해할 다문화 가정 이웃들을 생각하며 회원 모두 성심성의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봉사자와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구례 화엄사, 경로당에 백미 기탁

대항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가 최근 간 앞에서 개최한 '이웃사랑 물품 전달식'에서 백미 10kg 42포를 구례군 마산면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산면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전달식에 참석한 해덕스님은 "모두가 힘겨운 시기에 마음을 나누게 돼 기쁘다"며 "이번 기탁이 이웃에게 큰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영 마산면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답했다. /구례=손석봉 기자